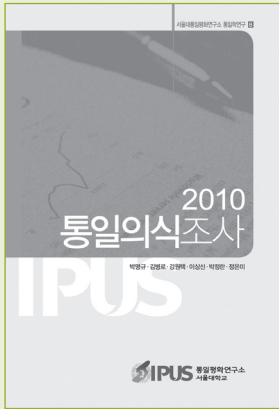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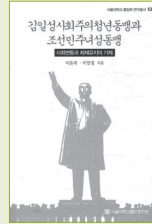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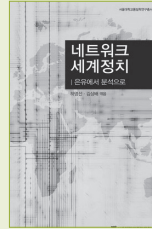
## 신간안내



서명 : 2010 통일외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통일학연구 8  
저자 : 박명규·김병로·강원택·이상신·  
박정란·정은미  
발간일 : 2010.12.31



서명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과 조선민주  
여성동맹 : 사회변동과 체제유지의  
기제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총서 10  
저자 : 이은죽·이인정  
발간일 : 2010.10.29



서명 : 네트워크 세계정치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총서 7  
저자 : 하영선·김상배 엮음  
발간일 : 2010.11.30

### 연구소 동정

- 박정란 선임연구원 사임
- 한준성 연구원 사임(영국 유학)
- 안병훈 연구원 임용(건국대 교육학과 석사 졸업)
- 김성민 연구조교 사임(한국국제교류재단 취업)
- 최규동 연구조교 임용(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수료)

### Guest Fellow(초빙연구원)

- Anthony Namkung  
(미국 Bill Richardson 뉴멕시코 주지사 특별보좌관)

### Independent Researcher(독립연구원)

- Marco Milani  
(이탈리아 볼로냐대학교 석사과정, 국제관계학전공)
- 최경희 (일본 도쿄대학 박사과정, 국제관계전공)
- Geoffrey K. See (조선교류 디렉터)

### 인턴십

- Christine Kwon (권정연, UCLA 학부 졸업)

### <교류 및 방문>

#### 태국 대사관, 본 연구소 방문

- 일시 : 2010.9.30(목) 16:30~17:30
- 장소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세미나실
- 태국 정부의 일본 및 남북한 담당자와 태국 대사관에서 본 연구소를 방문, 본 연구소 연구진으로부터 남북관계 현안을 듣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본 연구소 방문>



2011년 1월 19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본 연구소를 방문하여 연구소를 둘러보고 본 연구소 연구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 <2011년도 상반기 일정 안내>

#### 동북아 다자협력포럼 개최

- 일시 : 2011년 3월 24~25일
- 장소 :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 연구소 창립 5주년 기념학술회의

- 일시 : 2011년 4월 29일(금)
-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

##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설립에 참여하실 분에게는

- ▶ 10억원 이상 기부하실 경우 출연자 존함의 기금명(SNU○○○통일학연구기금)으로 체계적인 통일학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 초빙교수, 전문가육성 프로그램은 일정기간 소요비용(연간 약 6천만원) 만을 지원하실 수도 있으며 해당기간 동안 프로그램 명칭에 출연자 존함을 부여해 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문화관 (73동) 통일평화연구소 Homepage: <http://tongil.snu.ac.kr>  
 Tel: 02) 880-4052-4 Fax: 02) 874-7305 E-mail: [tongil@snu.ac.kr](mailto:tongil@snu.ac.kr) 발행인 박명규 편집 안병훈, 한경은

## 통일평화연구소 간추린 뉴스

<b>인문한국(HK) 평화인문학연구단 출범</b>	1	<b>세미나+포럼</b>	10
<b>국제회의</b>	2	• 제34차 통일학세미나	
• 독일 통일 20주년 기념 학술회의		• 제35차 통일학세미나	
• Europe-North Korea : Humanitarianism and Business		• 제36차 통일학 세미나	
<b>국내회의</b>	4	• 제18차 통일정책포럼 - 토니 남궁 박사 방북 레포트	
• 2010 통일의식조사 발표 : 통일의식, 통일론, 통일세		<b>통일아카데미</b>	12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정책 및 발전방향 모색		• 통일아카데미 제8기 수료	
• 통일문제의 비교사회학적 접근		• 통일아카데미 제9기 수강생 모집 안내	
• 북한정치정세 변화와 탈북청년의 통일운동 방향 모색		<b>[제29회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입상자 발표</b>	13
<b>통일학 기초연구 학술심포지움</b>	8	<b>연구소 소식</b>	14
• 제11차 : 남북통합을 위한 학술적 준비: 사료해제, 척도개발, 계통분류, 지원모델		• 통일평화연구소 운영위원, 겸무연구원	
• 제12차 : 남북통합을 위한 학술적 준비: 의식·체제·사람의 통합을 위하여		• HK 평화인문학 사업단 사업위원회	
		• 통일과 평화	
		• 신간안내	
		• 연구소 동정	
		• 교류 및 방문	
		• 2011 상반기 일정 안내	

## [통일평화연구소, 인문한국(HK) 평화인문학연구단 출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는 2010년 12월 1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인문한국(HK)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1세기 녹색 한반도를 위한 평화인문학”이라는 아젠다로 진행하게 될 본 연구소의 HK사업은 2010년 12월 1일부터 향후 10년간 지속되며 연간 8억원(간접비 별도)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한반도형 평화학 정립을 목표로 진행하는 이번 HK사업은 인문학적 평화학과 제도 및 체제론적 평화학을 학제간 연구 및 융합 학문적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 연구를 전담하는 HK연구교수 및 HK교수를 순차적으로 총원할 계획이며, 이 분야에

유능한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HK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0년 12월 15일 연구소 안에 ‘평화인문학연구단’을 출범하고, 연구단장은 박명규 소장이 겸임하며, 부단장으로 임홍배 교수가 위촉되었다. 기존의 조직은 통일학센터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2011년 2월 현재 연구전임인력 충원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진 채용절차와 연구공간 마련이 완료 되는대로 2011년 4월 29일 연구단 출범식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독일 통일 20주년 기념 학술회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과 법무부, 한스자이텔재단은 2010년 10월 4일 (월) 9:30~18:00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에서 독일 통일 2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독일 통일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법제도적 이슈, 사회/정치/경제/문화의 차이를 논의하고 한반도 통일에의 함의를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특히 입주의 여지가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인원이 참석하였으며, YTN,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본 행사의 내용이 보도되었다.

- 10:00~10:10 **개회사** 이귀남 장관 (법무부)
- 10:10~10:20 **축사** 오연천 (서울대 총장)
- 10:20~10:30 한스-올리히 자이트 (독일대사)
- 10:30~12:30 **SESSION 1**  
**사회** 신울 교수 (명지대)  
**제1발표** : 지크프리드 브로스 교수 (독일연방헌법재판관)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헌법적 문제들"  
**제2발표** :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 (HSS) "통일재원 조달 및 통일세 관련 논의 - 한국과 독일 사례비교"  
**제1토론** : 왕선택 기자 (YTN)  
**제2토론** : 김병연 교수 (IPUS)
- 14:00~16:20 **SESSION 2**  
**사회** 성낙인 교수 (서울대)  
**제1발표** : 유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동·서독 주민간 친족 및 상속문제 처리와 그 시사점"  
**제2발표** : 이효원 교수 (서울대)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체제불법 청산과 그 시사점"  
**제3발표** : 김병기 교수 (중앙대)

-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몰수 토지·국영기업 처리와 그 시사점"  
**제4발표** : 신현운 교수 (연세대) "독일의 통일법 체계와 남북관계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시사점"  
**제1토론** : 윤대해검사 (법무부)  
**제2토론** : 박기동검사 (법무부)  
**제3토론** : 양영희 판사 (광주지법)  
**제4토론** : 박정원 교수 (국민대)
- 16:30~18:30 **SESSION 3**  
**사회** 장달중 교수 (서울대)  
**제1발표** : 박성조 교수 (베를린 자유대학) "동서독간 통합의 정치경제적 측면(Political Economy of East-and West German Integration)"  
**제2발표** : 전영애 교수 (서울대) "독일 통합과정의 사회심리적 측면과 교훈"  
**제3발표** : 송태수 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독일 통합과정의 경제적 측면과 교훈"  
**제1토론** : 임혁백 교수(고려대)  
**제2토론** : 이우영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제3토론** : 정형곤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8:30~18:35 **폐회사** 박명규 소장 (IPUS)

## Europe-North Korea : Humanitarianism and Business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와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의 주최로 EU-North Korea : Between Humanitarianism and Business 출판 기념 학술회의가 2010년 10월 27일 (수) 16:00~18:00에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최병오홀에서 열렸다. Europe-North Korea : Between Humanitarianism and Business는 3년 전 통일평화연구소가 주최한 '유럽연합과 남북관계' 학술심포지엄에서의 발표와 토론이 계기가 되어 유럽과 북한의 관계를 다룬 연구책자 간행을 기획, 추진해온 결과이다. 유럽과 북한의 관계를 각각의 전문가들이 인도주의적 관점, 정치 및 경제적 관점, 역량 강화 및 개발지원 관점, 투자 및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살펴본 책으로서, 관련논문 11편이 수록되었으며 통일평화연구소 박명규 소장,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베른하르트 켈리거 박사, 베를린 자유대 종신교수이자 동아대 석좌교수인 박성조 교수의 공동편집으로 독일의 LIT 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 이 행사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인도적 지원, 독일 통일 정치 경제적 교훈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16:00~16:15

### Opening Session

#### Opening remarks:

Prof. Myoung-Kyu Park, Director, IPUS

#### Congratulatory remarks:

Marjo Cromptvoets (deputy head of Mission, Embassy of the Netherlands)

Prof. Woosik Moon (Director, Center for EU Studies)

16:20~17:40

### Session: "The European Way toward North Korea"

Moderator: Mr. Pierre Clement DUBUISSON (Ambassador of Belgium)

Paul Tjia "European businesses and North Korea"

Prof. Sung-Jo Park, "Aspects of European NGOs and EU's Asia-Invest Programme in North Korea"

Dr. Bernhard Seliger, "Capacity building in North Korea the experience of Hanns-Seidel-Foundation"

17:40-18:00

### Book Presentation

## 2010 통일의식조사 발표 : 통일의식, 통일론, 통일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는 “2010 통일의식조사 발표 : 통일의식·통일론·통일세”의 제하에 2010. 9. 7(화) 13:30~18:00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통일평화연구소는 2007년부터 매해 7월과 8월 사이 전국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날 학술회의는 4회째를 맞은 2010년 통일의식조사 결과와 분석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 날의 발표는 국내외의 주요 언론을 통해 매우 비중있게 보도되어서 통일의식조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주목, 이 행사의 2부에는 박명규 소장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 정부의 통일세 제안과 통일에 대한 전망을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이 마련되었으며 이 자리에서도 매우 뜻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서울대 신성호 교수가 사회를 맡은 1부에서는 통일평화연구소의 정은미 박사, 박정란 박사, 이상신 박사 및 이번 조사에 같이 참여한 서울대 정치학과 강원택 교수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통일의식과 대북인식을 발표한 정은미 박사는 통일시기와 관련 예년에 비해 비관적인 전망이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또 통일의 이유로 민족동질성보다 현실적인 이유를 드는 응답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정박사는 2010년 통일의식의 특징을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감은 증가하였지만 통일의 실현과정에서 현실주의적인 접근 태도를 보이는 이중적 혹은 양면적 의식 구조의 특징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현상을 “이중적 통일인식”이라고 지칭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박정란 박사는 대북지원 및 인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를 정리하였다. 박박사에 따르면 대북지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

나 줄이되, 단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게 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남한에 들어오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하기 보다 ‘선택적’으로 수용하되 일단 수용 후에는 지원을 확대하여 정착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주된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강원택 교수와 이상신 박사는 이날 주로 정치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통일의식조사를 분석하였다. 강교수는 대북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별로 보수, 중도, 진보의 이념 집단간의 견이 서로 수렴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난 것을 지적하면서, 북한 변수를 둘러싼 이념 갈등이 극복하기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제 그러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대응은 공세적인 것과 유화적인 것 모두가 선호되고 있음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 이상신 박사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정부가 발표한 천안함 침몰원인을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의 비슷한 조사에서 주로 4점 척도를 사용한 것과 달리 태도의 세기를 좀더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정부 발표를 신뢰하는 비율은 32.5%, 신뢰하지 않는 비율은 35.7%, 그리고 반반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31.7%로 드러났다.

### 13:30~15:00 SESSION 1 2010 통일의식조사 발표

사 회 신성호 (서울대)

#### 결과분석

제1발표 : 정은미 (통일평화연구소/사회학)

“통일의식과 대북인식”

제2발표 : 박정란 (통일평화연구소/북한학)

“대북지원·인권·북한이탈주민”

#### 결과분석

제1발표 : 강원택 (서울대/정치학)

“정치의식과 대북정책”

제2발표 : 이상신 (통일평화연구소/정치학)

“천안함과 대외인식”

### 15:00~15:30 휴 식

### 15:30~18:00 SESSION 2 통일의식·통일론·통일세

사 회 박명규 (통일평화연구소 소장)

패 널 김영수 (서강대) 박순성 (동국대) 박영호 (통일연구원) 이상현 (세종연구소) 정낙근 (여의도연구소) 조동호 (이화여대)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정책 및 발전방향 모색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정책 및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2010.10.21(수) 13:00~17:30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후원으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와 열매나눔재단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국회인권포럼,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이 공동주최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입국 2만 명 시대를 맞아 지원정책의 주요 과제인 취업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심포지움은 민간단체, 정부, 학계, 국회 등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함께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었다.

총 2세션으로 구성된 발표와 토론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취업 현황과 대책(서정배, 통일부 정착지원과장),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현황과 과제(박영수, 경기중소기업청), 북한이탈주민 고용 활성화의 요건과 과제(김화순,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지원현황과 과제(김범석, 열매나눔재단 사무총장), 북한이탈주민 취업활성화 방안과 제안(박정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북한이탈주민 취업에 따른 진입장벽(전연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의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 및 취업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서정배 통일부 정착지원과장과 김범석 열매나눔재단 사무총장, 박영수 경기중소기업청 과장 등이 중앙 정부, 지자체, 민간 부문에서의 최근 상황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서정배(통일부 정착지원과) 과장은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의 필요성, 취업지원제도 및 사업현황 등을 개괄하면서,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취업 지원체계에 있어 개인별 적성, 능력, 희망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개인별 맞춤형 진로탐색과정을 확대지원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박영수(경기중소기업청) 과장은 ‘북한이탈주민-중소기업 만남의 장’을 통한 취업지원 추진 배경, 체계, 채용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추진성과와 문제점들을 제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채용박람회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채용박람회에 대한 인식개선, 운영방법 다양화, 참가자 희망사항 배려, 박람회에서의 약속 이행 등의 실천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김범석(열매나눔재단) 사무총장은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역할 수행의 한계점과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의 설립 지원 기관 운영, 전문취업지원센터 운영, 북한이탈주민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축, 전문적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의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김화순(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박사는 북한이탈주민 고용정책의 흐름을 1, 2기로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2010년도 일자리 대책의 현황과 쟁점들을 제시하는 가운데, 향후 고용활성화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북한이탈주민 고용활성화 정책 방향으로 취업우선전략에서 인적자원개발 중심으로의 전환, 정착경로별 서비스전달체계의 연계, 근로유인제도에서 고용활성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란(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박사는 북한이탈주민 취업활성화를 분단사회 소통 문제와 연계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취업의 사회적 함의와 활성화 저해 요인을 실업요인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해 ‘미스매치’와 ‘노동수요’ 현황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취업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는 바, 취업미스매치 극복과 수요 창출을 위한 사회 소통, 수요 창출의 ‘구인-구직 매칭 효율성’ 제고 요건 및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인-구직 수요 매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6가지 요소로 유망성, 진입용이성, 지역수용성, 경력 기여성, 역량 가용성, 선호성 등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전연숙(한국기술대학교) 박사는 북한이탈주민이 지각한 진로 장벽의 원인과 내용을 분석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연령, 학력, 거주기간 등의 특성별로 진로 장벽 지각 수준을 제시하였다

## 통일문제의 비교사회학적 접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북한사회문화학회, 통일연구원은 2010년 11월 26일(금) 오후1시30분~오후6시에 이화여자대학교 포스코관 253호에서 “통일문제의 비교사회학적 접근” 제하의 학술회의를 공동개최하였다. 이 학술회의는 6.25전쟁 60주년과 독일통일 2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에서 사회문화 영역의 중요성을 주목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특히, 이 학술회의는 국내 입국한 탈북자들이 2만명이 넘었고 한반도 통일과 통일을 위한 사회통합의 과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체제전환기의 동유럽과 통일 독일의 사회통합과정을 되돌아봄으로써 비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남북한의 통합과제와 체제변화에 직면한 북한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시도되었다.

학술회의에서 한양대 전성우 교수가 “통독 20면 중간 결산 : ‘체제통합’ 성공, ‘사회통합’ 실패?” 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하였다. 전 교수는 양독의 사회통합 과정을 ‘순차적 상호개혁’이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하였다. 여기서 ‘순차적 상호개혁’이란 현실적으로 동독이 서독에 의해 해체 내지 개혁되었지만, 점차 서독체제 역시 ‘동독적 요소’ (평등지향성, 사회정의 등)에 의해 자체 개혁을 시도하였음을 의미한다. 전 교수는 결과적으로 사회정의와 평등에 대한 동서독인들의 가치관 차원의 상호접근을 통해 새로운 통일독일 복지국가 모델을 창출했음을 강조한다. 이에 토론을 맡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연구위원은 동서독과 남북한의 근대화에 대한 성찰과 발전수준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대안적 가치로서 ‘성찰적 통일’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아시아·동유럽 탈사회주의 정치체제변환 비교”라는 주제로 이화여대 진승권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진 교수는 아시아 체제전환국으로서 중국, 몽골, 북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동유럽 체제전환국으로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구유고연방국 6개국, 구소련 연방국 15개국을 대상으로 체제전환 이후 각국의 정치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공산체제 붕괴 이후 실시된 모든 대선 및 총선 결과를 분석하는 방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에 토론을 맡은 한양대 김명수 교수는 개신교, 가톨릭, 불교, 이슬람 등 종교 변수가 각국의 정치체제전환의 다른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정은미 선임연구원이 “북한 사회 개방화구조 : 주체성과 분절성”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발표를 하였다. 정 선임연구원은 탈북자와 방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의 개방화 실태와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북한의 개방화는 지역, 직업, 연령 간의 격차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의 개방화수준가 아직 정치 분야의 개방화를 추진하는 수준에까지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북한의 개방화에 대한 중국과 남한의 영향력이 각각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자인 서강대 정영철 교수는 개방에 대한 개념정의가 더

- 13:30~13:40 **개회사** 회장 박명규
- 13:40~14:50 **SESSION 1 체제전환과 정치통합의 비교사회학**  
**사회** 김석향 (이화여대)  
**제1발표** : 전성우 (한양대)  
 “통일 독일의 사회통합과정”  
**제2발표** : 진승권 (이화여대)  
 “아시아·동유럽 탈 사회주의정치변동과 구체제 유산 : 개혁기 집권당 변화 비교분석”  
**제1토론** : 조한범 (통일연구원)  
**제2토론** : 김명수 (한양대)
- 15:00~16:10 **SESSION 2 북한사회의 변화와 남북통합과제**  
**사회** 김석향 (이화여대)  
**제1발표** : 정은미 (서울대)  
 “북한사회 개방화구조: 주체성과 분절성”  
**제2발표** : 전영선 (건국대)  
 “21세기 북한 문화코드 ‘아리랑’”  
**제1토론** : 정영철 (서강대)  
**제2토론** : 이상숙 (경원대)
- 16:20~18:00 **SESSION 3 라운드 테이블 : 통일문제의 사회문화적 접근**  
**사회** 박명규 (서울대)  
**토론** 강동완 (통일연구원), 김명수 (한양대), 김석향 (이화여대), 박정란 (서울대), 이상숙 (경원대), 장경섭 (서울대), 전성우 (한양대), 전영선 (건국대), 정영철 (서강대), 정은미 (서울대), 진승권 (이화여대), 조한범 (통일연구원)

엄밀히 이루어져야 하며, 미시적 수준의 변화와 거시적 수준의 변화 간의 상호성에 대한 심층 분석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네 번째로 건국대 전영선 연구교수가 “21세기 문화코드로서 ‘아리랑’ ”을 발표했다. 전 교수는 2000년 이후 북한에서 창작된 일련의 ‘아리랑’에서 나타난 다양한 정치문화적 코드를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전 교수는 2000년 이후 북한의 ‘아리랑’은 선군정치와 민족주의가 결합되어 선군 이론의 문화적 담론에 종속됨으로써 미래에 남북한의 문화통합에서 이질성이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술회의는 박명규 북한사회문화학회장의 진행으로 참석한 발표자와 토론자 모두가 “통일문제의 사회문화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이 이어졌으며, 특히 현안으로 떠오른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이 남북관계 및 통일논의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제안되었다.

## 북한정치정세 변화와 탈북청년의 통일운동 방향 모색



2010년 11월 27일(토) 15:00~18:00에 서울대 멀티미디어강의동(43-1동) 201호에서 “북한정치정세 변화와 탈북청년의 통일운동 방향 모색” 제하의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와 새코리아청년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학술행사는 국내 탈북자들의 시각에서 북한의 정치정세변화를 분석하고 전망해 보고자 하였다.

총 2세션으로 구성된 학술회의에서 제1세션은 <북한정치정세의 변화와 탈북자사회의 대응전략 모색>을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강철환(북한전략센터) 대표가 “3대세습으로 인한 북한의 권력재편과 정책변화 전망”, 김성민 대표(자유북한방송 대표)

가 “북한민주화와 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북한민주화와 탈북대학생의 통일운동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북한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탈북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김인실(탈북여성인권연대)사무국장이 발표하였으며, 김흥광 대표(NK지식인연대)가 “탈북청년학생 및 지식인의 통일운동 네트워크 형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각 발표에 대한 토론에는 건국대, 숭실대, 연세대, 고려대 등에 재학 중인 탈북 학생들이 참여하여, 탈북자 세대간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 제11차 남북통합을 위한 학술적 준비 : 사료해제, 척도개발, 계통분류, 지원모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는 2010년 12월 10일(금) 오후 13:00~18:00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남북통합을 위한 학술적 준비 : 사료해제, 척도개발, 계통분류, 지원모델”의 제하로 2010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심포지움(제11차)을 아래의 일정으로 개최하였다.

### 13:30~15:10 제1회의 사료해제와 척도개발

- 사 회** 최완규(북한대학원대학교)  
**1 주제** 냉전시대 북한정부의 체제유지 정책과 통일정책 및 외교전략 - 구동독 외교 사료의 수집과 해제  
**발 표** 성상환(서울대 독어교육학과)  
**토 론** 김 면(연세대학교 미디어아트연구소)  
**2 주제** 대북태도 척도의 개발 : 사회심리학적 접근  
**발 표** 박명규(서울대 사회학과)  
**토 론** 윤광일(서울대 정치학과 BK사업단)

### 15:10~15:30 휴 식

### 15:30~17:10 제2회의 계통분류와 지원모델

- 사 회** 이순형(서울대 생활과학대학)  
**3 주제** 야생동물 계통분류 남북공동연구 : 한반도 다람쥐의 종 분류와 계통지리  
**발 표** 이 향(서울대 수의과대학)  
**토 론** 김 원(서울대 생명과학부)  
**4 주제** 남한에 정착한 탈북주민을 위한 보건 의료 지원체제 모델개발  
**발 표** 박상민(서울대 가정의학과)  
**토 론** 김종흥(국립의료원)

〈사료해제와 척도개발〉을 주제로 한 제1회의에서는 성상환(독어교육과) 교수가 냉전시대 북한정부의 체제유지정책과 통일정책 및 외교전략을 구동독외무성 외교사료 해제를 통해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1960년에서 1970년까지의 북한관련 사료 분석으로 북한 정부가 취한 외교적 태도변화를 북한과 동독 간 관계 변화를 통해 이해하고, 당시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진행된 북한정부의 시소외교를 파악, 북한정부의 체제 유지와 유일체제 노선의 진행을 분석하였다.

〈북한 이미지와 대북태도 : 사회심리적 척도개발과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 박명규(사회학, 통일평화연구소 소장)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대북태도나 정책지향, 그로 인한 남남 갈등이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한 집단적 이미지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본 연구 발표에는 이미지와 관련된 이론들을 토대로 북한이미지의 개념과 유형을 도출하면서, 북한이미지의 유형별 분포를 연구결과로 제시하였다.

〈계통분류와 지원모델〉을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는 먼저 이향(수의생화학) 교수가 야생동물 계통분류 남북공동연구 : 한반도 다람쥐의 종분류와 계통지리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남북한 동물학자 공동연구로 한반도 고유종 확립, 남북한 공동 생물자원 확보 등의 의미가 있다며, 연구 결과에서 북한 내 대륙계열과 한국계열의 두 계열 다람쥐 동시 존재, 한반도 다람쥐 고유성 확인, 남북한 생물학자의 장기적 공동연구 가능성 확인 기회 등이 되었음을 밝혔다. 두 번째로 남한에 정착한 탈북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체제 모델 개발을 주제로한 박상민(의학과)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박상민 교수는 이번 연구가 북한이탈주민의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것임을 목적으로 제시하면서, 중재프로그램 현황을 ‘Access Frame’ 모델을 사용하여 조사분석하는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보건의료 지원체제 모델을 제안하였다.

## 제12차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심포지움 : “남북통합을 위한 학술적 준비 : 의식체제사람의 통합을 위하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는 2011년 2월 8일(화) 13:00~18:00에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남북통합을 위한 학술적 준비 : 의식체제사람의 통합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래와 같다.

### 13:30~15:30 제1회의 통일의식, 사회통합, 농업개혁

- 사 회 김영수 (서강대)
- 1 주제 한국인의 통일의식과 태도의 장기적 변화 분석 : 1990-2007
- 발 표 은기수 (국제대학원)
- 토 론 강원택 (정치학)
- 2 주제 독일 통일과 여성의 사회적 통합
- 발 표 한정숙 (서양사)
- 토 론 최윤영 (독문)
- 3 주제 체제전환국의 농업생산성 변화분석을 통한 북한 농업개혁 전략 연구
- 발 표 김관수 (농경제사회학)
- 토 론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5:50~17:30 제2회의 북한이탈주민의 신체·정신 건강과 지원

- 사 회 황상익 (의학과)
- 4 주제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심리, 신체적 외상 사건 경험과 정신건강상태 평가
- 발 표 류인균 (의학)
- 토 론 조영아 (상지대)
- 5 주제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지식, 건강행위, 건강서비스요구도 조사
- 발 표 최명애 (간호학)
- 토 론 김정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서강대 김영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회의에서는 은기수 (국제대학원)교수가 남한사람들의 1990년부터 2007년까지의 통일외식 변화추이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 관하여 참석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후 연합뉴스, 한국일보, 코리아헤럴드 등 주요언론에서 본 주제가 보도되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는 한정숙(서양사학) 교수 연구팀의 연구로 분단에서 통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 독일여성의 삶의 역사적인 측면, 통일 이후 여성노동의 사회학적 측면, 문학작품에 나타난 통일 이후 동독여성의 삶의 모습 등 세가지 부분을 담고 있었다. 세 번째 주제는 안동환(농경제사회학) 교수 연구팀이 독립국가연합(CIS)과 동유럽(CEE), 아시아의 체제전환국을 분석 대상으로 농업생산성과 그 결정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토지자유화 추진에 있어 반환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함을 제안하였다.

제2회의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지원에 관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류인균 교수(의학)는 탈북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기존 질문지법과 달리 두부 외상, 심리적 외상 결과를 뇌촬영을 통해 밝혀냈다. 이 연구를 통해 뇌생물학적 기반 증거를 수집하고 뇌기반 치료법 발견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통일 한국의 주역이 될 탈북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지식, 건강행위, 건강서비스 요구에 대해 조사한 최명애(간호학) 교수 연구팀의 발표가 이어졌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지식을 향상시키고 교정할 직접적인 교육과 강의를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함을 제안하였다. 이상 학술심포지움의 발표자료는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제34차 통일학세미나

## Lessons from Economic Transition in Russia and Eastern Europe for Reunification of Korea \_ Christopher M. Dav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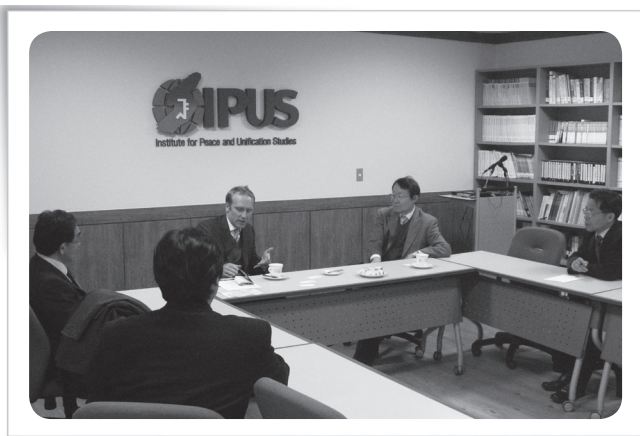


통일평화연구소는 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과 공동으로 2010년 10월 26일 제 34차 통일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자로 참석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경제학과의 크리스토퍼 데이비스(Christopher M. Davis) 교수는 러시아와 동유럽의 경제적 전환 과정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갖는 함의에 대해 발표했다. 데이비스 교수는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 스탈린 당시의 소련과 유사하다고 보면서 소련이 경제개혁에 실패했던 것처럼 북한도 유사한 실패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포괄적인 제도 개혁을 실시했던 동유럽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고, 인내심을 갖고 효과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주제 : Lessons from Economic Transition in Russia and Eastern Europe for Reunification of Korea
- 일시 : 2010. 10. 26(화) 16:30~18:00
- 장소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세미나실(73동 209호)
- 주최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 서울대 경제학부 WCU 사업단
- 연사 : Dr. Christopher M. Davis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제35차 통일학세미나

## Global Risk Response Network \_ Michele Petochi



다보스포럼으로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마이클 피토치(Michele Petochi) 대학공동체 책임자(Director and Head of University Community)는 위기 관리 전문가로서 한반도 위기관리에 관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 연구소의 연구진과 세미나를 가졌다. 이 세미나에서는 특히 각 영역별로 위험관리 담당자 (risk officer)를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주제 : Global Risk Response Network (GRRN)
- 일시 : 2010.11.11(목) 14:00~16:00
- 장소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세미나실
- 연사 : 마이클 피토치(Michele Petochi)

## 제36차 통일학 세미나

### Reimaging Knowledge Exchange in North Korea \_ Geoffrey K. See



통일평화연구소는 2011년 2월 23일(수)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우리 연구소 독립연구원인 Geoffrey K. See와 Reimaging Knowledge Exchange in North Korea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조선교류(Choson Exchange, 이하 CE)의 대표로 있는 Geoffrey K. See는 그간의 활동과 CE에 대한 소개, 북한과의 교류 상황을 보고하였다. CE의 설립목적은 북한의 학생들과 젊은 전문가 그리고 북한의 연구기관들에게 시장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형 (특히 금융 부분), 경제, 그리고 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학생들은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에 대해 관심이 많으나 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아주 제한

되어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고자 CE는 지난 2년 동안 북한의 정부 관료와 학자, 그리고 금융 기관, 국제기구의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와 미팅을 통해서 북한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모형을 개발하고자 노력해왔다. 2011년부터는 시장경제의 기초가 되는 기업, 금융, 법에 대한 토론을 지속하기 위한 작은 규모의 워크숍을 구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북한 청년들이 해외에서 인턴십과 유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예정되었다고 하였다. 20대 중반에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는 Geoffrey K. See 모습이 참석자들에게 도전을 주는 자리였다.

## 제18차 통일정책포럼

### 평양 방문 리포트 \_ Tony Namkung



2010년 10월 8일(금) 우리 연구소 초빙연구원인 토니 남궁 박사(미국 Bill Richardson 뉴멕시코 주지사 특별고문)를 모시고 제18차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토니 남궁 박사는 2010년 9월 말 평양을 방문하였으며 북한으로부터 전해들은 핵문제 및 남북관계 관련 소식을 리포트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가 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질문을 쏟아 냈다. 토니 남궁 박사의 리포트에 따르면 북한은 뉴욕의 한국 대사관을 통해 우회적 방법으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으나, 당시 남한정부는 그것을 공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경제적 상황은 활기를 띠었고 외부의 우려와는 달리 '붕괴'의 징후나 전쟁의 분위기는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 일시 : 2010.10.8(금) 10:30~12:00
- 장소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세미나실
- 주최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 강사 : 토니 남궁(Tony Namkung)

## 통일아카데미 8기 수료



통일평화연구소의 대표적인 교육프로그램인 통일아카데미 8기의 수료식이 11월 23일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통일아카데미는 대학(원)생들의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관심제고와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하며, 통일한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하에 마련된 통일교육 사업이다. 이번 제8기 통일아카데미는 10월 0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총 8주에 걸쳐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강의 및 질의응답, 영상자료 시청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8주의 수업프로그램을 마친 후 수료식에서는 총 33명의 수강자 가운데 출석 우수생 23명에게 수료증이 발급되었다. 8기까지의 통일아카데미는 그동안 서울대에서 다루지 않던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를 교내 학생 및 교외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서

울대생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통일아카데미가 수료식이후 이루어진 설문조사도 이와 같은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통일아카데미 8기 수료생 23명중 총 20명을 대상으로 한 통일아카데미에 대한 평가 설문 조사 결과 만족도 관련 문항에서 20명 모두 만족스럽다는 응답(매우 만족: 10명, 다소 만족 10명)을 해주어 통일아카데미에 대한 수료생들의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이와 함께 처음 기대에 비교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충족 이상이 20명(매우 충족 : 7명, 다소 충족 : 13명)으로 수업 매뉴얼이 학생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생들의 통일에 대한 준비, 더 나아가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통일아카데미가 작지만 알찬 도움을 주고 있다.

횟수	강의날짜	강의주제	강사
1주	10월 5일	(입학식) 분단체제의 변화와 새로운 통일 구상	김병로(통일평화연구소 전임연구교수)
2주	10월 12일	남북관계 이대로 괜찮은가 -대북정책 평가와 해법 모색	고경빈(서울사이버대 대우교수, 전통일부 국장)
3주	10월 19일	북한의 권력체계와 후계문제	정성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4주	10월 26일	국제관계적 시각에서 본 한반도 문제	이 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5주	11월 2일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본 남북교류협력	신동호(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사무총장)
6주	11월 9일	현장으로부터 듣는 생생이야기 -개성공단의 현황과 전망	유동욱(개성공업지구책임자회의 회장, (주)대화연료펌프 회장)
7주	11월 16일	새터민에 대한 우리의 시선과 통일미래	박정란(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8주	11월 23일	(수료식) 다문화시대의 연성복합통일론	박명규(통일평화연구소 소장,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통일아카데미 제 9기 수강생 모집 안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에서는 대학(원)생들의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관심제고와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하여, 통일한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통일아카데미>과정 제9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대상 : 통일·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있는 본교 대학(원)생 (본교생 우선 후 타교생 신청 가능)
- 접수기간 : 2011년 3월 2일(수)~3월 31일(목) 오후 5시
- 교육기간 : 2011년 4월 5일~5월 31일 (총 8주, 매주 화요일 19:00~21:00 (총 8회))

• 교육장소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세미나실 (문화관 73동 216호 세미나실)  
접수방법 및 구체적인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되어있음

회수	강의날짜	강의주제	강사
1주	4월 5일	(입학식) 분단체제의 변화와 새로운 통일 구상	김병로(통일평화연구소 전임연구교수)
2주	4월 12일	한반도 안보 정세와 전망 : 군사안보에서 인간안보까지	김홍광(NK지식인연대 대표)
3주	4월 19일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 통일 미래의 갈림길	최수영(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획조정실장)
4주	4월 26일	통일에 대한 국내외 인식과 태도	이상신(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위원)
5주	5월 3일	북한 새세대 문화와 남북한 청년의 소통	전영선(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6주	5월 17일	북한의 자연재해와 식량상황 : 미래 한반도를 위한 개발의 제의 모색	이종무(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소장)
7주	5월 24일	북한 인권 실태와 통일 한반도의 인권 실현 과제	윤여상(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8주	5월 31일	(수료식) 다문화시대의 연성복합통일론	박명규(통일평화연구소 소장,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제29회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입상자 발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주관으로 제 29회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와 입상자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통일 논문 현상공모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주관하여, 통일부,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공동 주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는 대학사회 내 통일, 북한문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통일정책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어 왔다.

이번 논문 공모의 주제는 미래지향적 통일비전 모색, 녹색 한반도 실현방안,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관계 개선 방안,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방안, 통일대비 통일교육 발전 방향 등이 제시되었다. 논문 접수가 2010년 6월 1일부터~10월 15일 까지 이루어진 가운데, 1~3차 심사를 통해 총 11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수상작은 아래와 같이 최우수상 1, 우수상 4(학부 2, 대학원 2), 장려상 6(학부 3, 대학원 3) 등 총 11편이다.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 12월 23일(목) 개최되었으며, 입선작은 「대학(원)생 통일논문집」으로 발간 된다.

구 분		성 명	소속 대학	논문제목
최우수	학부 대학원 공통	김명일 신도균	서울대 대학원	통일비용 지불의사(WTP)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우수	학부	손명아	중앙대학교	독일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연구 - 한반도 통일에 주는 교훈을 중심으로
		옥창준	서울대학교	북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 부카니즘을 넘어서
	대학원	박신영 이미나	한국외대 대학원	한반도 평화 및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접경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협력
		김건우	서울대 대학원	북한 급변사태와 국제사회의 개입
장려	학부	이보인 채소연	경상대	국군포로문제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연구
		이호주	충북대	녹색한반도를 위한 남북 광해방지협력 방안
		방민권	경상대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중심으로
	대학원	박원연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국군포로의송환및예우등에관한법률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광수 홍유진	한국교원대 대학원 전주교대대학원	마이크로 블로그(트위터)를 활용한 자율적 협동학습이 초등학생의 통일교육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박성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북한 SOC 투자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과 정부와 민간의 역할연구

## 통일평화연구소 운영위원 및 겸무연구원

### 운영위원

직 위	소 속	학 과	직 급	성 명	비 고
위원장	사회대	사회학과	교 수	박명규	소장
위원	약 대	제약학과	교 수	이봉진	연구부처장
	사회대	경제학부	교 수	김병연	부소장 겸 통일연구실장
	국제대	국제학과	부교수	신성호	평화연구실장
	의 대	의사학교실	교 수	황상익	과제관리실장
	사회대	정치학과	조교수	권형기	자료관리·출판실장
	법 대	법 학	교 수	이철수	대외협력실장
	인문대	국어국문	교 수	권영민	
	사회대	정치학과	교 수	장달중	
	국제대	국제학과	부교수	박태균	
	농생대	농경제사회	교 수	이태호	
	생활대	소비자아동	교 수	이순형	
	공 대	전기공학		이재홍	
	미 대	동양화	교 수	정형민	
이상1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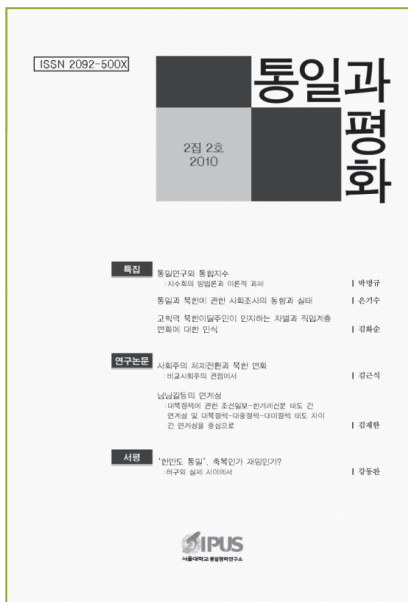
### 겸무연구원

소속대학	학 과(부)	직 급	성 명	소속대학	학 과(부)	직 급	성 명	
인문대	국어국문	교 수	권영민	경 영	경 영	교 수	곽수근	
		교 수	이현희		전기공학	교 수	이재홍	
	독어독문	부교수	임홍배	공 대	컴퓨터공학	교 수	박근수	
	철학과	부교수	정호근		에너지·시스템	교 수	박형동	
	고고미술	교 수	김영나		농생대	농경제사회	교 수	이태호
사회대	정 치	교 수	장달중	미 대	동양화	교 수	정형민	
	외 교	교 수	신옥희		법 대	법 학	교 수	성낙인
		교 수	윤영관	교 수			이철수	
		교 수	하영선	부교수			이근관	
		부교수	전재성	사범대			교 육	교 수
	경 제	교 수	김병연	생활대	소비자아동	교 수	이순형	
		교 수	이 근	의 대	소아과학	교 수	신희영	
	사 회	교 수	임현진		의사학	교 수	황상익	
		교 수	장경섭		행정대학원	행 정	부교수	권혁주
		교 수	정근식	국제대학원	국 제	부교수	박태균	
	인 류	교 수	김광억			부교수	신성호	
	사회복지	교 수	조흥식			사회대	지 리	교 수
	언론정보	교 수	강명구	정 치	부교수		권형기	
	자연대	생명과학	부교수	이은주	계 39명			
	간호대	간 호	교 수	최명애				

## HK 평화인문학 사업단 사업위원회 명단

직 위	소 속	학 과	비 고
위원장	사회대학	사회학과	박명규
위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김병연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임홍배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권영민
	인문대학	철학과	허남진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김광역
	인문대학	국사학과	권태억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백창재

## 『통일과 평화』 제2집 2호 발간



지난 12월 22일 우리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저널 『통일과 평화』 제2집 2호가 발간되었다. 이번호 저널은 ‘통일문제 연구와 조사방법론’을 주제로 ‘통일연구와 통합지수-지수화의 방법론과 이론적 과제’(박명규), ‘통일과 북한에 관한 사회조사의 동향과 실태’(은기수), ‘고학력 북한 이탈주민이 인지하는 차별과 직업계층’(김화순) 등의 특집 논문을 실고 있다. 이 논문들은 국민의식조사, 사회조사, 탈북자 조사 등을 활용하여 통일문제 연구를 다면적으로 접근한 논문으로 여겨진다.

한편 일반논문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 변화-비교사회주의 관점에서’(김근식), ‘남남갈등의 연계성’(김재한) 등이 있다. 일반 서평인 ‘한반도 통일, 축복인가 재앙인가?’(강동완)에서는 통일을 준비해야 할 우리의 자세를 현실적으로 논하고 있다. 『통일과 평화』에 수록된 논문들은 본 연구소 홈페이지(<http://tongil.snu.ac.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통일과 평화』 제3집 1호 원고 모집

『통일과 평화』 제3집 1호의 원고를 모집하며 마감일은 2010년 4월 22일(금)입니다. 이번호에서는 특별히 <한반도와 평화>의 주제에 대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모집요강 및 원고집필요령은 홈페이지(<http://tongil.snu.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